

‘번개’ 볼트의 독주시대



케냐의 아벨 키루이가 지난 22일 베를린에서 벌어진 2009 IAAF(국제육상경기연맹)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 이어 세계선수권 100·200m·400mR 우승
남자 마라톤 케냐 키루이 2시간6분54초 대회신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3·자메이카)가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00m 계주에서도 우승,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볼트는 23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픽아이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자메이카 대표팀의 3번 주자로 뛰어 37초31의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하면서 100m(9초58), 200m(19초19)에 이어 이번 대회 세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종목 대회 종전 최고기록은 미국이 1993년 작성한 37초40이었다.
100m와 200m에서 잇따라 세계신기록을 작성한 볼트는 400m 계주에서는 작년 베이징 올림픽 때 세운 세계기록(37초10)을 깨지 못했지만 칼 루이스(1983, 1987년), 마이클 존슨(1995년), 모리스 그린(1999년), 타이슨 게이(2007년·이상 미국)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이 대회 3관왕을 달성하면서 역사상 최고 스프린터의 반열에 올랐다.
또 베이징올림픽 100m, 200m, 400m 계주에서 이뤘던 3관왕을 1년 만에 재현

함으로써 굵직한 두 개 대회에서 6전 전승, 세계신기록 5개라는 신화를 창조하고 ‘살아 있는 전설’로 우뚝 섰다.
자메이카는 여자 400m 계주에서도 동만 추배를 들었다. 여자 계주팀이 금메달을 따기는 1991년 이후 18년 만이다.
100m 우승자 셸리 안 프레이저와 은메달리스트 케런 스투어트를 앞세운 자메이카는 42초06을 찍어 바하마(42초29), 독일(42초87)을 따돌리고 우승했다.
여자 해머던지기 결승에서는 이번 대회 세 번째 세계신기록이 작성됐다.
폴란드의 아나타 블로다치크는 2차시기에서 77m96을 던져 2006년 러시아의 타티아나 리센코가 던진 세계기록(77m80)을 3년 만에 갈아치웠다.
남자 마라톤에서는 케냐의 아벨 키루이가 2시간6분54초의 대회신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일본은 상위 세 선수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단체전에서 3위에 올라 전원 중하위권에 처진 한국과 대조를 이뤘다. /연합뉴스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가 2009년 8월 22일 베를린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남자 400m 릴레이 결승에서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보미 ‘메이저 퀸’ 꺾고 생애 첫 챔프



이보미가 ‘넵스 마스터피스 2009’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받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비와 연장 점전 끝 우승

KLPGA 넵스 마스터피스

이보미(21·하이마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2008년 US여자오픈 챔피언 박인비(21·SK텔레콤)를 꺾고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보미는 23일 제주 서귀포시 더 클래식 골프장(파72·6천479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넵스 마스터피스 마지막 라운드에서 박인비와 12언더파 204타로 동타를 이룬 뒤 연장 두번째 홀에서 파를 지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보미는 2007년 2부투어인 드림투어를 통해 KLPGA 정회원 자격을 얻었지만 시드전에서 감기 몸살에 걸려 하위권에 머물면서 정규투어 데뷔를 1년 뒤로 미뤄야 했다.
마음 고생을 했던 이보미는 2008년 당당히 드림투어 삼관왕을 차지하며 정규투어 출전

권을 따낸 뒤 마침내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상금 1억원을 받은 이보미는 삼급 랭킹에서도 3위(1억6천900만원)로 뛰어 올랐다.
LPGA 투어 멤버 최혜정(25)도 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지만 18번홀에서 2.5m짜리 버디 퍼트가 홀을 외면,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하고 3위(11언더파 205타)에 머물렀다.
챔피언연조에서 역전을 노렸던 안선주(22·하이마트)는 4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정은(21·김영주골프)에게 4위(9언더파 207타) 자리도 내주고 5위(4언더파 212타)로 밀렸다.
한편 마지막 날에도 조영란(22·하이마트)과 박시현(21)이 각각 7번홀과 5번홀에서 티샷을 홀에 집어넣어 이번 대회에서 모두 5개의 홀인원이 쏟아졌다.
KLPGA 대회에서 이렇게 많은 홀인원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번개의 질주

‘수비 탁구’ 박미영·김경아 코리아 오픈 정상 스매싱

여자탁구 ‘수비 콤비’ 박미영(삼성생명)과 김경아(대한항공)가 2009 대한항공배 코리아 오픈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다.
박미영-김경아는 23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복식 결승에서 티에야나-장화준(홍콩)에 4-1(7-11 13-11 11-6 11-3 11-5) 역전승을 거두

고 우승했다. 코리아오픈 복식에서 처음 우승한 박미영-김경아 콤비는 지난해 4월 브라질 오픈 정상에 오른 이후 1년4개월 만에 국제탁구연맹(ITTF) 오픈 투어에서 우승을 일켰다.
한국 최고의 방패가 홍콩의 날카로운 창을 막아냈다.
박미영-김경아는 티에야나의 과감하고 날

카로운 스매싱에 첫 세트를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하지만 베테랑 김경아의 끈질긴 수비와 박미영의 빠른 공격 전환이 돌보인 2세트가 승부처였다. 초반 끌려가던 박미영-김경아는 활짝 호흡을 과시하며 점수를 쌓아 승부를 듀스로 몰고 갔고 결국 통틀리 13-11로 이겨 세트 스코어 1-1로 균형을 맞췄다.
3세트를 여유 있게 따내 승부의 물꼬를 돌린 박미영과 김경아는 여세를 몰아 4, 5세트도 가져와 역전 우승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대학편입의 해법은 김영 - www.kimyong.co.kr
2010년 자신의 실력을 최강대학에 딱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대학편입 성공은 역시 김영
김영 김영편입학원 (충주청부경찰서 뒤편) 227-8008

- ▶ 상위권 대학을 갈아타
- ▶ 동양은지표이벤 개강
- ▶ 2009 편입 시험 문제 암기
- ▶ 편입영어 이론반 개강